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창립 33주년 맞아

최진종 원장, '고객중심의 세계 최고' 글로벌 비전 제시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창립 33주년을 맞아 글로벌 시장을 향한 '고객중심·세계 최고 지향' 비전을 제시했다. © 김영도 기자

올해로 창립 33주년을 맞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고객지향 중심의 기관으로 세계 속의 최고 소방용품 인증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새롭게 변모하는 기술원의 약진을 다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최진종)은 지난 1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창립 33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소방산업 진흥에 기여한 우수산업체 8개사와 모범직원 8명, 장기근속 직원 8명에 대한 포상식을 가졌다.

최진종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기술원도 상당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우리가 나가야할 길도 고객중심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인지해 세계 속의 메이드인코리아를 각인시킬 때가 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또 “첨단 고부가가치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의 입지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갈 때 소방산업의 획기적인 진흥을 일구어 갈 수 있다”고 전하면서 “기술원에 마련되는 소방장비 검수센터도 세계 최고를 지향해 해외수출의 교두보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최진종 원장은 소방장비의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예고했다. ©

최저가 입찰에 따른 소방장비의 품질저하로 인한 무분별한 해외 고가장비의 수입을 방지하고 제품의 고품질화를 견인해 제값주고 제값받는 풍토를 마련하는 한편 명실공히 세계에서 인정받는 소방장비 주요 생산국으로 입지를 마련하겠다는 최진종 원장의 의지이다.

이날 유공자 및 우수산업체 표창 시상식에는 유공직원 8명과 우수산업체 8개사, 10년·20년 장기근속 직원 8명에 대한 공로패가 수여됐다.

<표창 수상자 명단>

소방산업진흥 유공산업체 표창으로 ■행정안전부장관 ▲에쓰-오일(주) 에이에이알수베이 대표이사 ▲(주)케이텔 김용기 대표이사 ■소방방재청장 ▲국송산업 최내혁 대표이사 ▲대명기계공업(주) 김재호 대표이사 ▲(주)용원이엔씨 김형수 대표이사 ■기술원장 ▲(주)대성기계 조기영 대표이사 ▲(주)삼성화재경보기 전준현 대표이사 ▲우성전자(주) 송상용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소방산업진흥 유공직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위험안전부 문덕인 ▲산업지원본부 임채필 ■소방방재청장 표창 ▲시험인증부 김상원 ▲제품검사부 김성욱 ▲경영관리부 이순권 ■기술원장 표창 ▲감사실 김유경 ▲산업지원본부 김선찬 ▲제품검사부 윤성욱이 각각 수상했다.

20년 장기근속 직원으로 ▲감사실 이경준 ▲경영관리부 염문천 ▲시험인증부 정환필 ▲시험인증부 최원철 ▲제품검사부 이상문 ▲위험물관리부 나병균이며 10년 장기근속 직원은 기술관리부 이주설 ▲고객지원부 김은신이 각각 공로패를 받았다.

<photo I@@k>



<http://www.fpn119.co.kr>

▲ 소방산업진흥 유공산업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에스-오일(주) 박선석 상무(좌)와 (주)케이텔 김용기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 소방산업진흥유공자 소방방재청 표창 수상자로 좌로부터 상장을 들고 있는 국송산업 최내혁 대표이사, 대명기계공업(주) 김재호 대표이사, (주)용원이엔씨 김형수 대표이사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 소방산업진흥 유공산업체 기술원장 표창 좌로부터 상장을 들고 있는 (주)대성기계 조기영 대표이사, (주)삼성화재경보기 전준현 대표이사, 우성전자(주) 송상용 대표이사 © 소방방재신문



<http://www.fpn119.co.kr>

▲ 소방산업진흥 유공직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좌로부터 위험물안전부 문덕인(2급), 산업지원본부 임채필(4급) © 소방방재신문



▲ 소방산업진흥 유공직원 소방방재청장 표창 © 소방방재신문



▲ 소방산업진흥 유공직원 기술원장 표창 © 소방방재신문



▲ 10·20년 장기근속 직원 공로패 © 소방방재신문

김영도 기자

inheart@fpn119.co.kr

기사입력시간 : 2010년 06월03일 [09:53:00]